



wisconsin conference  
UNITED METHODIST CHURCH



# 열매 맺기

위스칸신연회  
사람들을 위한  
성경공부

저자  
정 회수 감독  
댄 딕 목사  
앤 스피트 헨셜 목사  
고든 린드 목사  
스티브 폴스터 목사  
샘 로야과 목사  
테브라 탐슨 목사



## 목차

열매 맺기 성경공부 사용법 .....	1
단원 1: 도입 .....	3
단원 2: 하나님의 풍성.....	6
단원3: 채용: 복과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10
단원4: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사들 .....	14
추천 자료들 .....	18

판권 2013, 위스칸신 연회

All scripture quotations unless noted otherwise are taken from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1989,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IV are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Scripture quotations marked NKJV™ are taken from the New King James Version®. Copyright © 1982 by Thomas Nelson,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모든 성경구절인용은 달리 말하지 않은 경우 대한성서공회 발행 “한글판 개역 성경전서” (1989년 11월 10일 146판)을 사용하였음

# 열매 맺기 성경공부 사용법

다음의 사용법은 소그룹 공부의 자료로 이것을 사용시에 해당이 됩니다. 당신의 고유한 처지에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이 자료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설교시리즈의 기초로서.

당신이 열매 맺기 성경공부로 소그룹을 이끌려고 준비한다면, 여기에 단원들이 부드럽게 흘러가게 하고 모두에게 “열매맺는” 경험을 주기를 돕기 위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 열매 맺기 준비

모임 장소. 시간 전에 모이는 환경이 준비되도록 하십시오. 결상이 충분한가? 조명이 적당한가? 온도가 온화한가? 필요한 준비물이 있나? 그룹의 효과적인 나눔을 위해서 원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틀. 네 번 수업으로 각각 60-90 분이 걸리게 하거나,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8주 과정의 교회 학교수업으로 해도 됩니다. 단원의 틀을 정하십시오.

날짜, 시간과 장소.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이가 수업의 날짜, 시간과 장소의 정보를 밝히 알도록 하십시오.

기도. 각 그룹의 일원은고유한 경험과 통찰에 기초하여 고유한 신앙발달단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룹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미리 읽기.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통찰들과 문제들을 적으십시오. 공부할 문제에 대한 당신의 답을 준비하십시오.

## 열매 맺기 조성

제일은 제일되게. 당신의 주된 역할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경공부를 사용하여, 개인들과 공동체가 신실한 제자도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휴대전화기를 정숙하게. 끼어드는 것들을 최소화 하십시오. 각 단원의 시작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끄거나 조용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정시에 시작.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첫 모임부터 이것을 정확히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도, 늦게 오는 이들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더 빨리 그룹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정시에 끝. 단락의 어느 곳을 공부하는 중이든, 정해진 마침시간이 되었으면, 그룹원들이 필요하면 떠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하십시오. 사람들의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끝에 남아서 얘기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비하십시오. 일정시간내에 떠나거나 건물을 달아야 한다면 그것을 미리 밝혀 두십시오. 보육시설이 끝나는 시간을 염두에 두십시오.

## 열매 맺기 그룹 토의

당신의 열의 나누기. 모든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리십시오. 적극적 경청으로 이것은 잘 증명이 됩니다.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에 말한다면, 그룹은 수동적이 됩니다.

“안전한” 참여를 권장. 모든 이들의 참여를 원하는 한편으로, 한 사람이 지나친 주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룹원들이 불편하다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아니오 라고 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늘 용인됩니다.

모두에게 발언권을 줘. 어떤 문제들은 더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서 토의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이들의, 특별히 큰 그룹에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북돋우십시오.

침묵도 괜찮다. 침묵을 너무 빨리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답하지 않으면 질문을 다른 말로 하고 다시 하십시오.

상냥하게 이끌. 대화가 단원주제에서 벗어나면, 다시 주제로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거나, 그 대화가 나름대로 자신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라고 염려하지 마시오. 아무도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찾으십시오. 성령이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룹원들이 당신에게 확실한 답을 구한다면, 답을 주는 것보다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이 다루거나 답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은 문제나 질문들이 나오면, 그룹이 그것들을 조사해서 다음 수업에서 조사한 바를 그룹과 나누라고 초청하십시오.

신뢰 형성. 출석한 구성원들의 장점에서 출발하고 그들의 반응을 긍정해 주십시오.

과정을 즐기시오. 그룹과 배우고 자라는 것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그룹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당신의 지도력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줄곧 놀라운 발견을 기대하십시오!

# 단원 1

## 도입

갈라디아서 5:13-1; 22-23; 6: 1-10

### 시작 기도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힘을 참으로 깨닫게 된다는 당신의 약속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함께 분별할 때에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리게 하소서. 당신이 주시는 풍성함의 기쁨을 나누려 사랑으로 다가갈 때 놀라운 은혜의 신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둘러 싸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합니다. 아멘

### 열매 맺는 제자들

이 공부를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들을 탐구해봄으로써 공동경험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놓읍시다.

성경문단들과 이 공부의 안내를 나누는데서 곧 경험하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첫 창조 이야기로부터 계시록의 종결단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자원들,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알고 있는) 늙고 아이가 없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위대한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은 의심했고, 사라는 웃었으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부를 통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사는데 대한 공부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아무 것도 없을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삶을 부요하게 하고 채우는 것은 물질적인 복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기쁨과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주고 나누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술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과 어떻게 동반자가 될까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탐구하도록 우리를 열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로 복주셨고, 우리 각자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살피보도록 은사를 받았읍니다. 우리가 은사를 배우고 개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은사들을 사용할 새 길과 자리를 여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경험에서 찾는 핵심되는 신학적 개념 중 하나는, 신자의 신앙이 그가 삶을 나누는 모습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나눔을 표현하는 한 방식은 열매 맺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배울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울 때에야,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을 먹이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풍성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많고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탐구하면서, 이 공부는 참여자들이, 우리의 여정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포함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공부는 신앙여정을 아직 견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은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서 새 사람들을 얻는 데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모든 사람들과, 교회에 참가 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다른 이들을 끌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함께 하는 지를 배울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연관이 없는 누군가를, 당신과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것을 통해 관계를 맺고자 초청해 보십시오.

이 공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내면을 깊이 보는 것과,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공부는 우리의 은사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나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공부의 결과로 참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 지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준비하고 나누는 데 시간과 은사를 투자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들은 많은 은사로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제자로서 삽니다.

이 공부에 온전히 참가한다면, 복을 받고 열매맺는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빛고, 초청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준비를 시켜 세상으로 보내시는 지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 공부할 문제들

1. 무엇이 당신을 이 공부에 참가하도록 이끌었습니까? 이 공부에 임하는 당신의 희망사항을 그룹과 나누십시오.
2. 갈라디아서 3:1-5에서,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새 이해에 대해 읽으십시오. 할례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3. 갈라디아서 5: 13-14를 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 지 토의하십시오.
4. 갈라디아서 5:22-23을 읽으십시오. 육신이 하는 많은 일들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서 단일한 열매를 맺는데, 아홉 길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의 아홉 가지 나타남을 열거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열매를 표현하거나 삶으로 보여 주었는 지, 당신이 본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당신은 영적 열매를 어떻게 표현/ 삶으로 보여 주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영적 열매를 표현/ 삶으로 보여 줍니까?

5. 갈라디아서 6: 1-10, 바울의 공동체 삶을 위한 가르침을 읽으십시오. 영으로 부터 영생을 수확하기 위해 영으로 심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탐구하고 나누십시오.
6. 당신이 영의 열매를 더 온전히 삶으로 보여 주면, 당신의 교회 생활/사역에서 무엇이 바뀔까요?
7.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당신이 청해 볼,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몇 사람의 이름을 대 보십시오. 함께 묘안을 생각해 보고, 이 공부나 다른 때의 성경 공부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짧은 연극을 짝과 함께 하십시오.

## 마침 기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풍성함 가운데서 신실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서 사는 것을 무서워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여정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면서 당신을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들과 함께 사역하여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도록 능력을 주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 마음, 정신, 영혼이 복을 받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되기를. 아멘

# 단원 2

## 하나님의 풍성

창세기 1; 출애굽기 16; 열왕기 상 17; 마태 14

### 시작 기도

너그럽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을 떠 바치는 능력있는 존재이신 당신에 대해 듣고 상기하려고 이제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함께, 세상에서 당신이 강함과 희망의 근원이라는 지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따를 것을 택할 때 당신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당신의 긴박함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깨워 주소서. 성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은 인류와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세상과 인류에 관계한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 강함과 희망의 근원이며 지탱자이시기에, 그 관계는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되고 창조하는 풍성은 모두에게 선물이고 모두와의 관계이다. 풍성은 모든 창조의 자연스런 상태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신상태이며 인간이 택할 수 있는 행태이다. 저자 헨리 나우옌은 풍성한 정신상태와 행태의 예를 든다

“모든 이를 위해 충분히, 충분보다 많이 있다. 양식, 지식, 사랑... 모든 것.”...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양식을 준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우정을 주려 한다...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주는 것이 불어 난다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쓰고 남는 것이 많을 것이다.

(헨리 나우옌 모임에서 헨리 나우옌 : 매일묵상, 5월6-7, 2012.)

<http://generositymonk.com>에서 5월/9일/12년 묵상기록을 보시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쪽 풍성함을 보여 준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풍성, 너그러움, 복주심과, 피조계의 열매맺음을 선포한다. 출애굽기 16장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준다. 열왕기 상 17장에서 엘리야는 비와 양식을 또, 죽음에서 생명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 준다. 마태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모두가 충분한 것보다 많이 갖게 되기까지 우리가 가진 자원을 불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다.

풍성은 하나님의 경제를 대표한다. 하나님은 한 덩이보다 많이—모든이에게 충분한 빵을 준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누어 분배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활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행하는 은혜에서 성화하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충분하다. 그러나 풍성은 충분히 가졌다는 생각이나 충분히 가졌다는 것에서 더 나아간다. 풍성한 정신상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파악하고, 희망으로 이끈다.



## 인간의 결핍

하나님의 영광스런 풍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선물을 부인하고 결핍 속에 살것을 택한다. 결핍은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다고 하는 거짓 상태이다. 결핍의 안경을 통해 보면, 실체는 나누어지고 깨져 보인다-조각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 결핍의 상태에서 사는 것을 택함이 우리의 태도, 정신 상태와 행태를 형성한다.

두려워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정신자세를 갖게된다:  
“모두를 위한 충분한 양식이 없으므로, 비상시를 대비해 나를 위해 충분한 것을 저장해야 한다,” 혹은...” 모든 이에게 충분한 사랑이 없으므로, 다른 이들이 나에게서 내 친구들을 빼앗아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 친구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비극은, 당신이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결국 당신 손에서 썩게 된다는 것이다(앞글에서).

운동경기, 사업, 나라들, 교회생활에서도 승자와 패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 인간의 결핍상태가 들어난다. 우리가 가진 것과 이웃이 가진 것을 비교한다. 충분한 돈이 없을까 걱정한다. 두려움과 욕심에서 물건을 쌓아둔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경에 결핍의 예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7장에 바로가 모든 이에게 충분한 물건이 없을까봐 두려워, 욕심을 부리고 무자비해져서, 결핍 상황에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결국 노예가 된다.

결핍은 인간의 경제를 대표한다. 빵이 한 덩이 있다면, 모든 이가 그것의 한 조각을 얻으려고 싸워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 결핍 정신상태는 절망에 이른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택하는 파멸을 초래하는 선택이다.

## 풍성을 택하라

하지만, 우리가 결핍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과 모든 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결핍	혹은	풍성
자기를 의지함	혹은	하나님을 의지함
물질만능	혹은	영성
소비자주의	혹은	너그러움
부정적 태도	혹은	긍정적 태도
무서움	혹은	존경, 호기심, 사랑
세속 도시	혹은	신의 도시
단일문화주의	혹은	다원문화주의
인종차별	혹은	문화적 능력

신학자 윌터 브루거만은 풍성과 결핍 사이의 갈등과 선택이 우리를 정의하는 문제라고 썼습니다. 브루거만은, 이 갈등이 우리에게 우리 전 삶을 다스리는 결단을 내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의 기쁜 소식에 끌리는 것과 결핍을 믿는 힘 사이의 갈등에 의해 우리가 찢어질 수 있다.”(“풍성의 예식, 결핍의 신화,” 윌터 브루거만 저, 기독 세기, 3월 24-31, 1999;

<http://www.religion-online.org/showarticle.asp?title=533> 을 보시오.  
2013년 2월)

우리가 풍성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언어, 태도, 행태에서. 기쁨과 평화를 위해, 쌓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욕심이 아니라 너그러움을, 이기적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택하고, 긍정적,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 틀렸나 보다는 무엇이 가능한가를 묻는 가능성의 정신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은사들, 약속,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내고,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로서, 사회적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그것들을 알아내고 그것들 위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와 세상을, 의도 되어진 참 모습: 즉 하나님의 풍성한 동산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다거나 신실하고 열매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언어로부터 시작하여, 실제적인 방법으로, 모두를 위한, 모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다문화 지역사회와 모든 지역사회를 안으며, 포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자원인 생각, 언어, 태도 속이 풍성하면,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자원들이 따라 옵니다.

우리 공동체들이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선물들을 나누고, 모두를 위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고, 양육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물 받았음을 온 세상에, 전 교구에,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연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궁핍한 자의 외침을 듣고 응답하는데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우리 자신, 은사들, 증거, 부를 가지고 온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연결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시는 지를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 공부할 문제들

1.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한 것을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나를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풍성함을 이야기로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것일까요?
2. 풍성이 “전 피조물의 자연스런 상태”이며 “하나님의 경제”라는 생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이 당신의 경험과 어떻게 맞습니까?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근심은?
3. 이 단원에서 언급된 풍성에 관한 성경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풍성과 너그러움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출애굽기 16 장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셨고 가르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했습니까?

열왕기 상 17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가뭄 가운데 양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풍성을 그녀가 받았습니까?

마태 14장에서, 헤론의 권능은 파괴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예수의 권능은 생명을 주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 장에 나타난 헤론의 헤프게 쓰는 잔치와, 예수의 먹임과 치유 사이에서 대조되는 것을 토의하십시오.

성경의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풍성을 증명합니까? 어떻게 이 단락들이 당신에게 감동을 줍니까?

4. 성경의 어디에서 결핍의 정신이 나타납니까?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나 당신의 교회가 풍성이 아닌 결핍을 택합니까?
5.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을 실천합니까? 이번에 배운 것에 기초하여 당신의 교회가 취할 행동방법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너그러워지겠다는 다짐을 반영하며, 사회로 손을 뻗치는 사역 혹은 다문화 사역을 위한 제안을 만드십시오.

## 마침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기를 택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다른 이들과의 관계로 끌어 들이는 힘, 희망, 사랑의 항상 임재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놀라운 은혜는 욕심의 사슬을 부수고, 우리가 당신의 제한없는 가능성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당신이 숨을 우리의 존재 속으로 불어 넣을 때에, 당신이 우리에게 가라고 부르시는 그 공간과 장소에 우리가 드나들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형시키는 자들이 됩니다. 당신의 길을 통하면 희망이 넘칩니다.

당신의 너그러운 선물의 일부가 되는 기회를 주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물을 잊을 때와 때때로 부인하기까지 할 때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며, 당신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고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세상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 희망, 사랑의 항상 임재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단원 3

## 채용 : 복과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 12: 1-3; 빌립보서 2: 14-18

### 시작 기도

하나님, 아브람이 복이 되도록 그를 복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폭력, 기아, 무주택, 주의들, 그리고 복을 필요로 하는 세상의 다른 모든 아픔으로부터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려고 당신의 빛 가운데 걸어 갈 때, 예수를 통한 당신의 구원의 빛이 모든 눈물과 두려움을 지우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 돌려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평화의 속삭임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말씀의 소리와 침묵 가운데 듣고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멘

### 구약에 있는 큰 임무

창세기 12:1-3에서, 아브람은 세계적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의 나라를 떠나라고 하시고 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개역).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불리웁니다. 사명의 눈을 통해 본문을 볼 때, 구약에 있는 “큰 임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또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지구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 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 반복되며 (창세기12:1-3; 18:18; 22:18), 이삭에게 한번(26:4) 그리고 야곱에게 한번(28:14-15) 주어 집니다. 하나님의 사명 개념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인종들에게 복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 성경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인종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복, 복주심, 복받은, 이 단어들은 기독교 성경에만 나올 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기독교회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의 계획은 두 겹 혹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며, 반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가족과 사역을 위해 삶에서 최선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님이 주시길 기대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최선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의 삶 속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한 교회로서 집단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는 사명을 목적으로 하여 복을 주십니다.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은 신앙공동체라고 주장한다면, 그 후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인종들이 그 교회에 의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줌으로써 그 받은 복을 참으로 주장합니까?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언어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색유리창, 침탑이나 파이프 오르간을 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과 주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명의 끈은 하나님이 주신 큰 임무가 주는 기쁨입니다. 한 인종이나 한 지역사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환영받고, 인정받고, 수용받고, 축하받는 것입니다.

공동체형성의 자문이며 저자인 피터 블락은 위스칸신의 교역자와 평신도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은사들을 알고, 그 지식을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교회사역을 먼저 결정하지 말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은사들과 지역 교회들의 비전과 사명을 연결하는 것이 갑절로 복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큰 임무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마태 28:18-20).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복을 받고는 지역사회로 가서 모든 나이, 민족, 인종의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씀과 식탁 예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서로와 하나, 온 세상에 대한 사역에서 하나되게 하소서”(연합감리교회 찬송가책, 연합감리교회출판국 [내쉬빌:1989])

###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빛

빌립보서 2:15 후반(NKJV™)에, 바울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로서 빛난다”라고 썼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기에 복수 단어인 “빛들”을 썼습니다. 웹스터의 사전은 단어 빛나다 를 비치다, 발광, 달아오름, 밝은, 뛰어나다 로 정의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자신을 잇고 봉사함으로 달아 오르며, 활발한 신앙으로 밝게 타며, 사명과 손 뻗기의 사역에서 뛰어나도록 부름 받았읍니다. 지역사회들, 사람들의 모임들, 나라들, 언어들, 계급들, 인종들 속에 있는 약 62억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들로서 빛납니다. 바울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로 규정짓는데,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고, 세상의 빛들이 되기 위해 빛 속으로 데리고 올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채용, 전도, 손 뻗기의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을 가고 있습니다- 슬픔, 애도, 손실, 실망, 좌절, 아픔, 실패; 이런 경우들이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기회들입니다. “땅굴 끝에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그들을 빛으로 이끌라고 우리는 부름 받았읍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궁핍한 시점에서 만났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췄읍니다.

로마의 어두운 감옥 방으로부터,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강한 빛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빌립보에 있는 첫 공동체인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로서 빛나라.” 달리 말하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지역사회로 가서 이렇게 물으라고 도전 받았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누군가 빛이 필요한가?” 같은 도전과 같은 질문이 우리 연합감리교 회중들에게 적용됩니다. 사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 5:16을 읽으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산상설교에 나온 이미지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빛을 다른 이들 앞에 비추라.” 바울이 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별들로 빛난다.” 본질적으로 양자는 같은 뜻을 전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사람들 앞과 속에서, 세상에서 빛나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세 차원에서 빛납니다. 우리는 위로 빛납니다: 찬양, 고백, 높임, 공동 기도와 찬송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는 안으로 빛납니다: 소 그룹, 기독교 교육, 교제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움. 우리는 밖으로 빛납니다: 세상으로, 어둠 속에서 도움, 희망과 치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자 갈급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의의 복음을 가지고 감. 세 차원 모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오늘, 내일 또 매일 비추시다.

### 공부할 문제들

1.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복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을 몇몇 열거해 보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어떤 복을 당신이 받았습니까?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복을 받은 때를 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으로 연장되었습니까?
2. 당신의 교회의 사역을 토의하십시오. 이미 당신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까(유지)? 신앙 공동체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기 위해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까(채용)? 당신의 교회에서 유지사역 대 채용사역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 창세기12:1-3 과 빌립보서 2:14-18을 다시 보십시오. 이 단락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단락들이 인간에 대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무엇하려고 부르십니까?
4. 당신의 교회에 있는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자원들을 그룹과 함께 열거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알려진 것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두 목록들을 비교할 때, 당신의 교회의 자원들을 끌어 들임/나눔으로써 어떤 필요들이 충족될 수 있는 지 고려하십시오.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이 필요합니까? 당신의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더 파악하기 위해, 당신의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를 당신의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더 모을 수 있을까요?
5. 당신이 “밖으로 빛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취할 새 행동을 하나 말해 보십시오.

## 마침 기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약속된 보호자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자신을 넘어 세상에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게 하셔서, 당신의 은혜, 정의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의 빛, 돕는 손발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섬김으로써 기쁨과 순종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할 때 당신을 노래하고 말하도록 우리 입술을 도우소서. 그들이 누구인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 뻗으라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하기로 다짐합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빛, 당신의 사랑, 희망, 영의 회복하는 약속을, 모든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된 이름으로; 아멘

# 단원 4

##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사들

로마서 12; 고린도전서 12; 에베소서 4

### 시작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서로와 하나로 만드는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손을 내뻗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를 붙들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묶일 때 될 수 있는 새 사람의 가치와 고유성을 깨닫고, 당신께 우리 삶을 드리며 이제 옵니다. 오 하나님, 겸손히 이제 당신의 뜻을 행하러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서 은사들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들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로마(로마서12장), 고린도(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에베소서4장) 교회로 보낸 바울의 편지들에는 열두 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손을 뻗음, 증거, 양육, 섬김의 드넓은 분포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직, 전도, 예언, 지도력, 동정, 섬김과, 다른 방언을 말하고 해석하는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 세상 속으로 가게 합니다. 지식, 가르침, 분별, 지혜와, 도움의 은사들은, 신앙을 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행정, 구제, 치유, 기적, 목양, 권면과, 신앙의 은사들은, 기초를 두고 신앙공동체에서와 그 너머에서 필요한 곳들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의 은사목록은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령이 우리 삶에서 역사함을 보여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의 성질에 대한 몇몇 통찰도 제공합니다.

영적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조합을 이루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일정한 은사들을 가지고 살고, 다른 이들은 새 은사들이 생겨나고 다른 은사들이 스러지는 것을 봅니다. 사역을 위하여 그의 은사들을 분별하고 강화하는 것이 각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는 기독교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은사들이 개인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선을 위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함께 힘을 발휘합니다- 함께질 때 그들은 부분들의 합계보다 더 커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많은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으나, 다른 은사받은 사람들과 합하여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얻어, 우리는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치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를 함께 (바느질)뜨려고 은사들을 주십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운 은유입니다. 은사로 받은 각 부분은 모든 다른 은사로 받은 부분과 신비하게 연합해야 그것의 고유한 목적을 가장 잘 완수 합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필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또 다른 은유를 든다면 컴퓨터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연산처리장치, 한 사람은 모니터, 한 사람은 아퍼레이팅 시스템, 또 한 사람은 자판, 마우스 혹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됩니다. 각자 혼자서 가치를 가지나, 어떤 부분이라도 그의 잠재력을 달성하는 오직 한 길은 큰 체계에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성장하며 점점 더 효율적이고 신실하게 우리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함께 배울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무 열매나가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22-23에서, 바울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다는 밖으로 보여지는 증거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친절, 너그러움, 신실, 온유와 절제를 만들고 퍼뜨릴 것이기에 세상에서 우리 삶을 보는 모두가 우리를 알아 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열매들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스며들고 충만한 한 성령의 모든 다양한 면들이라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은사들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근본적 변화의 촉매입니다.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체화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묶여서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너그러움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 예수께서 그가 시작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시고 떠날 준비를 하실 때, 상기시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5:16). 우리가 제자로서 자라고 성숙하여 갈 때, 영구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화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것들은 이기적이거나 사사로운 것들이 아니라, 겹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기도하셨듯이, 우리 기도도 “우리 뜻이 아니라 오 주님의 뜻을 행하소서” 하는 겸손한 기도일 것입니다.

## 열매 맺기 교훈들

열매를 기르는 것은 우리에게 네 개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건강하고 왕성하게 기르려면, 흙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기 전에, 돌과 잡된 뿌리들을 치우고, 진흙에 공기가 통하게 하고, 양분과 비료를 주고, 충분한 수분으로 흙을 추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인 훈련과 공동으로 은혜를 받는 방법들(기도, 공부, 회상, 예배, 성만찬, 섬김 등)을 실천하는 영적 준비가 필수적이고 가치있습니다.

둘째,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는 것은 의도성과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경작되고 있고 어떤 방식이 수확을 가장 많이 내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은사들과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성장하는 길을 파악하기 위한 분별과 발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째, 식물을 기르는 것은 재배, 양육과 정기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초를 뽑기, 먹이기, 매어 주기, 가지치기, 약 뿌리기, 물 주기는 각자에게 비슷하지만, 각 식물과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은사들을 개발하고 강화하고자 함께 일하는 것이 지역 교회들의 중심적인 기능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은사들이 함께 선용될 지, 새로운 사용법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은사들을 적소에 배치할 기회는 경작 과정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네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과 분배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 일은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과 단 맛과 양분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친절은 그럴듯한 좋은 명사 이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 때문에, 그 말은 우리에게 동사, 우리가 행하는 활동 용어가 됩니다. 우리는 동요와 소란이 이는 시간에 인내합니다. 가장 도전적인 시간에도,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고 신앙으로 채워집니다. 궁핍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아프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았읍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열매를 맺고, 내보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은사를 받았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 공부할 문제들

1.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읍니다. 영적 은사들에 대해 아는 것을 토의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영적 은사들을 안다면, 모임에서 말하십시오. 그것을 알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과의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누십시오. 새 은사가 생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은사가 쇠퇴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영적 은사들을 파악하는 도구들을,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서 그 도구들을 어떻게 제공할 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2. 모든 이가 능동적으로 영적 은사들을 나눈다면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신앙 공동체에서 공동선을 위하여 영적 은사들이 사용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교회에서 지도력을 위한 은사들을 파악하고 길러낼 길들을 고려하십시오.
3. 이 공부에서 거론된 성경 본문들을 돌아 볼 때, 반복되는 주제들을 무엇입니까?

이 주제들이 어떻게 영구적인 열매에 관련되거나 혹은 열매를 맺는지 토의하십시오.

4. 당신의 교회에 현재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없거나, 포함되지 않았거나, 지지나 축하를 받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과 당신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 인종이나 동네사람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환영받고, 포용받고, 받아들여지고 축하받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교회의 사역계획에서 무엇을 수정해야 합니까?
5. 당신의 그룹 안에 알려진 은사들을 기초로, 당신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손을 내뻗는 활동을 계획하십시오.

## 마침 기도

하나님, 예수를 따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당신의 은사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함께 묶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많은 길 모두를 탐구할 때 항상 신앙을 의지하여 걷는, 영감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준비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교회로 부지런히 초대하도록 우리를 준비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친절, 신실, 온유, 절제의 열매 맺는 은사를 삶으로 나타내도록, 이 공동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힘주고,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선물들이 된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의 열매맺음을 항상 삶으로 나타내도록 능력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 은사들을 나눌 때 나누어진 사랑과 나누어진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도우십시오. 개인적으로 또 공동으로, 당신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내라고 우리를 부르는,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분-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 결론

이 공부로 당신이 복을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어떤 열매 맺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까? 당신의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 추천 자료들

- Arrien, Angeles. *Living in Gratitude*. Boulder, Colorado: Sounds True, Inc., 2011.
- Block, Peter. *Community: The Structure of Belonging*.  
San Francisco: Berrett Koehler, 2008.
- Block, Peter and John McKnight. *The Abundant Community: Awakening the Power of Families and Neighborhoods*. San Francisco, Berrett Koehler, 2010.
- Brueggemann, Walter. *The Word that Redescribes the Worl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 Deymaz, Mark. *Building a Healthy Multi-Ethnic Chu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7.
- Dick, Dan R. and Barbara.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Wipf & Stock, 2011.
- McGinnis, Alan Loy. *Bringing out the Best in Peopl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Press, 1985.
- Nouwen, Henri. *Reaching Out*. New York: Doubleday, 1975.
- Pierson, Robert D. *Needs-Based Evangelism: Becoming a Good Samaritan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6.
- Rainer, Thom S. and Eric Geiger. *Simple Church*.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11.
- Reese, Martha Grace. *Unbinding the Gospel*. St. Louis: Chalice Press, 2008.
- Schwab, A. Wayne. *When the Members are the Missionaries*.  
Essex, New York: Member Mission Press, 2002.
- Stetzer, Ed and Thom S. Rainer. *Transformational Church*.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10.
- Winseman, Albert L., Donald O. Clifton, and Curt Liesveld. *Living your Strengths*.  
New York: Gallup Press, 2008.

권 율이 한글로 번역

